

세미나
지상중계

2011년 상반기 * 정책자문위원회

채 선 기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부 연구원

2011년 3월 18일 금요일 서울교육문화 회관 거문고홀에서 2011년 상반기 정책자문 위원회가 열렸다. 정책자문위원회는 대학운영분과, 대학규제개혁분과, 대학재정분과, 대학교육과정분과, 대입전형분과, 대학평가분과, 대학정보공시분과 총 7개 분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과별 모임을 갖기 전 위원장 회의가 있었다. 위원장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의 핵심안건도출에 관한 논의와 2011년 정책 연구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먼저 특별위원회와 정책자문위원회와의 연계방안으로 특별위원회에서 도출된 핵심안건에 대한 발표자 선정을 정책자문위원회 교수 중 해당 전문가가 맡아주기로 하였고, 사전에 위원장들 협의에서 분과별로 해당 주제에 맞는 안건을 배분하였다. 이어서 2011년 각 분과별 정책연구 주제를 선정하여 올해도 작년수준으로 분과별 정책연구논문집을 발간하기로 합의하였다. 본 회의의 진행은 7개 분과 위원들의 환담과 열린 논의로 진행

되었다.

먼저 대학운영분과는 특별위원회 자문 교수 선정에 있어서 핵심안건 선정에 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어서 연구과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며 다른 위원회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연구과제의 내용이나 범위를 확정하기 전에 관련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연구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2011년도 연구주제는 “미래대학 체제의 발전방향”으로 현 사회구조를 반영한 대학체제 개선방안 및 정원에 근거한 대학운영의 불합리성 개선, 학제 개편 및 대학 통폐합 시 대학의 특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는 방향을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둘째, 대학규제개혁분과는 특별위원회 핵심안건 중 사학법개정과 관련하여 담당 자문교수를 선정하였으며, 2011년 연구주제와 관련하여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연구주제는 “대학규제 유형에 따른 문제와

개혁방안”으로 정하였다. 현재 대학과 관련된 규제가 많은 관계로 전공자조차도 규제범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규제개혁의 범위와 유형을 정하고 그에 따른 문제와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셋째, 대학재정분과는 2010년 대학재정위원회 운영보고를 간략히 하고, 2011년 연구주제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연구주제는 “대학재정의 쟁점과 현안 과제”로 정하였으며, 그동안 논의되어왔던 대학재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연구와 관련하여 분과별회의를 진행하여 차후 자세한 목차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넷째, 대학교육과정분과에서는 2011년 연구주제를 “고교-대학 교육연계방안”으로 정하였다. 연구와 관련하여 세부주제로는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입학생 사례연구, 입학제

도와 연계한 고교-대학 교육, 고교-대학 연계 교과과정 개발, 입학사정관제 정착을 위한 대학교육 내실화, 대학생 학습법 프로그램 개발, 신입생 학습능력 강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다섯째, 대학평가분과에서는 2011년 연구주제를 “대학인증평가 정착을 위한 과제와 전망”으로 정하였으며, 연구주제와 대교협 내부 사업과 연계한 자문역할도 하기로 합의하였다. 현행 대학기관인증평가와 관련하여 대교협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자문역할 또한 하기로 하였다.

여섯째, 대입전형분과에서는 2011년 연구주제를 “대입환경 변화에 따른 입학사정관제 정착 방향”으로 정하고 2010년 정책연구 보고서를 2011년 기초자료로 활용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보다 구체적인 안으로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입학사정관제의 재정, 지원방식, 지원 규모 등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고교 교육과정의 변화,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식의 변경, 수능 영향력 약화 등에 따른 입학사정관제 정착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정보공시분과에서는 2010년 정보공시 시스템 이관(한국교육개발원→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른 사업 운용 및 기술 자문이 필요하며, 정보공시센터의 이관은 성공적이었지만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통한 효율성, 신뢰성 및 활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11년도 연구주제를 “대학정보공시제 발전방안”으로 정하

였다. 대학평가인증, 자체평가 등과 정보공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니 정책자문위원회 분과 중 평가분과와 공시분과와의 연계 및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공시정보 입력시기와 빈도의 문제가 논의되었고, 보다 근본적으로 정보공시 취지와 의미를 되새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렇듯 각 분과별로 열띤 논의를 통해 분과별 연구주제가 도출되었고, 2011년도 정책자문위원회가 대교협 사업과 연계되길 바란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앞으로는 각 분과별로 회의를 진행하고 하반기에 중간점검을 위해 전체모임을 갖기로 하였다.